나방, 달팽이, 풍뎅이류 방제대책

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& Herbal Science, R. D. A.

▲ 나방 류 피해

발생 생태 및 방제

- 주로 파밤나방, 담배거세미나방, 담배나방 등이 5월, 10월 등 연중 2~3회 발생하지만 시설 내에서는 더 일찍 또는 연중 발생함
- 어린 잎과 꽃봉오리를 가해하고 3령충 이후 잎 뒷면, 줄기 속에 숨어 있다가 밤에 가해하므로 발생 초기 어린 유충시기에 방제해야 효과적임
- 난에 등록된 약제가 없으므로 약해 및 약흔 유무 확인 후 전문 약제를 살포함

▲ 달팽이 류 피해 (민달팽이, 명주달팽이)

발생 생태 및 방제

- 꽃과 어린순, 어린 뿌리를 섭식하고, 촉각에서 분비된 끈적끈적한 점액과 체액으로 흔적이 남아 가해 부위는 하얗고 조직에 광택이 남
- 예방대책으로는 주위를 청결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, 숨을 수 있는 곳과 습기가 많은 곳은 정결하게 유지하여야 함
- 방제 약제로는 타 작물에 등록된 나메톡스, 메수롤 등이 있는데 토양 살포시 약해가 발생하는지 특히 주의해야 함

▲ 딱정벌레 피해

발생 생태 및 방제

- 풍뎅이, 나무좀 등 딱정벌레 피해가 드물게 발생함
- 성충의 경우 작물의 지상부를 가해, 유충의 경우 보통 근권부나 조직 내부에서 줄기 내부와 뿌리를 가해하여 피해를 일으킴
- 약제는 침투성이 있는 유기인계가 효과가 있고, 성충 침입시기에 다른 해충류와 동시방제 방제함
- 유충은 작물 근권부나 줄기 내부에 존재하므로 정식 전 · 후 토양살충제 등으로 배지를 소독하거나, 미리 예방차원에서 살충제를 살포함

“

해충 발생을 초기에 예찰하여
효과적으로 방제하면
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읍니다!!

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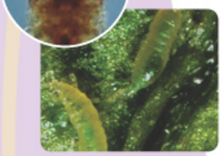
농촌진흥청
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
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& Herbal Science, R. D. A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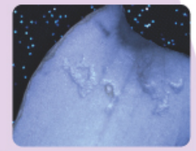
441-44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540-41
전화 (031) 290-6228 팩스 (031) 290-6259
홈페이지 : http://www.nihhs.go.kr

www.nihhs.go.kr

서 양 란

주요 해충 발생 생태 및 방제 대책





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
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& Herbal Science, R. D. A.

총채벌레 피해 및 방제대책

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& Herbal Science, R. D. A.

◀ 덴파레 꽃봉오리 피해

▲ 심비디움 꽃봉오리 피해

◀ 총채벌레 약충과 성충

발생 생태 및 특성

- 번식력이 강하여 방제가 매우 어려운 해충으로 건조할 경우 피해가 심하고, 꽃잎과 엽에 은색 자국(흔적)과 반점이 형성되고 꽃에는 낮은 밀도에서도 피해 발생
- 개화 전 꽃봉오리 내부를 가해 낙화 유발, 개화 후 꽃잎의 연한 부위에 긁힘 피해로 기형을 유발하므로 초기에 피해 증세를 확인하여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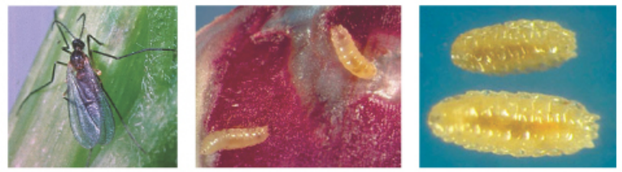
발생 예찰 및 방제

- 초기 예찰 방제가 매우 중요하여 황색, 청색끈끈이트랩에 유인된 해충과 꽃봉오리 등을 자세히 관찰 확인해야 함
- 아바멕틴유제(올스타, 버티맥 등), 스피노사드수화제(부메랑, 올가미 등)를 5~7일 간격 2~3회 살포 기주, 토양 속 알, 약충, 번데기까지 방제하여야 함
- 기타 침투이행성 약제 사용 시 주로 개화기 전후에 살포하므로 약해, 약흔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살포해야 함

양란혹파리 피해 및 방제대책

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& Herbal Science, R. D. A.

▲ 덴파레 꽃봉오리 피해



▲ 양란혹파리 성충, 애벌레, 번데기

발생 생태 및 특성

- 주로 덴파레 꽃봉오리에 기형 유발, 수침상 부패 등 곰팡이에 의한 꽃썩음 증상이나 총채벌레 피해와 비슷하나 피해 꽃봉오리를 열어보면 일부 탈색된 흔적과 작은 유충(1.5~2mm)들이 발견됨
- 성충은 개화 전 꽃봉오리 끝부분 틈에 산란, 24시간 이내에 부화한 유충들이 내부를 식해하여 기형 및 탈색 → 조숙 및 낙화를 유발함
- 꽃봉오리속 유충(애벌레)은 5~7일 후 탈출하고 토양 속에서 번데기가 되고 일정 기간(14~21일) 후 성충은 4~5일 동안 활동함

발생 예찰 및 방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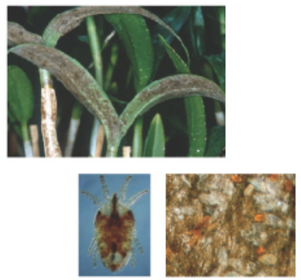
- 피해 받은 꽃봉오리나 바닥에 떨어진 꽃들을 모아 소각하고, 성충 발생이나 피해가 확인 되면 꽃과 경엽에 주로 암컷이 산란하는 초저녁에 침투이행성 약제를 살포함
- 등록된 전용약제가 없어 약제 살포시 약해나 약흔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. (티아메톡삼입상(아타라 등), 아세페이트수화제(아시트), 스피노사드입상(부메랑 등), 아세타미프리드 (모스피란 등))
- 토양 속 늙은 유충 및 번데기 방제를 위하여 토양살충제로 소독하고 발생밀도가 높은 경우 1주일에 2회 지상부에 살포하여 모든 단계를 동시에 방제함

응애, 깍지벌레류 피해 및 방제대책

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& Herbal Science, R. D. A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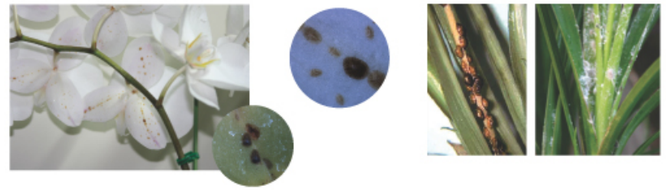
▲ 점박이응애 피해

양란주름응애와 피해 ▼



발생 생태 및 방제

- 잎 뒷면에 황색 또는 흰색 반점을 형성, 심하면 잎에 탈피각이 남고 갈변하여 조기낙엽 증상이 나타남
- 고온 건조한 조건에서 번식이 왕성, 온실에서는 연중 계속 발생하여 조기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잎 뒷면까지 약제가 잘 묻도록 충분히 살포
- 알, 약충, 성충들의 약제에 대한 반응이 달라 약제선정에 유의하고 동일 계통약제를 연속 살포하면 약제 저항성이 유발되어 약효가 떨어짐
- 난에 등록된 약제가 없으므로 소면적 살포로 약해 및 약흔 확인 후 전문 약제(올스타, 산마루, 아크라마이트, 주움, 밀베노크, 보라매 등)를 7일 간격 2~3회 연속 살포



▲ 깍지벌레류와 피해

발생 생태 및 방제

- 식물체 위를 뒤덮고 긴 구침과 구기를 이용해서 흡즙 피해를 유발, 심하면 작물에 활기가 없는데 난에 개미가 나타나면 깍지벌레나 진딧물이 분비한 감로 때문일 수 있으므로 발생을 확인해 보아야 함
- 1령 약충은 이동성이 있고 부드럽고 2령 이후는 두꺼운 깍지를 쓰고 고착생활하므로 어린 약충시기에 방제하여야 효과적이고 밀도가 낮은 경우 집적 긁어내고 피해가 심한 식물체는 미리 제거해야함
- 난에 등록된 약제가 없으므로 소면적 살포로 약해 및 약흔 유무 확인 후 전문 약제 살포. (스미치온, 메프치온, 칼립소, 아타라, 세시미, 수프라사이드 등 : 일부 고독성 약제가 있어서 사용시 약해에 특히 주의하여야 함)